

# 2014년 1분기 MENA 지역 경제동향 보고

두바이사무소

2014. 7. 15

## 1 종합

- (유가전망) 리비아 및 이라크의 내정 불안에 따른 석유생산 차질로 2014년 평균유가는 당초 USD100에서 USD105로 상향 전망
- (경제전망) GCC 산유국 중심의 증산으로 GCC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, 요르단, 레바논 등 레반트 국가들은 시리아 및 이라크 사태의 파급효과로 경제회복에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

## 2 주요 국가별 경제동향 요약

- (Bahrain) 금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3.1%로 전년 대비 다소 둔화
  - 동 기간 금융부문(GDP의 17% 점유)은 1.9%, 정부서비스 부문(GDP의 12.5% 점유)은 2.4% 성장
- (Kuwait) GCC국가 중 유일하게 1분기 동안 석유생산이 감소
  - 동 추세가 지속되면 경제성장률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, 최근 정부차입 증가 등 공공부분 투자 재개 가능성도 보임
- (Oman) 2014년 경제성장률 4.0% 전망
  - 금년 5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석유생산 3.5% 증가
- (Qatar) 금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6.2% 성장
  - 건설부분의 높은 성장률(전분기 대비 12.9%, 전년 동기 대비 19.6%)이 성장률 주도
  - GDP의 12%를 차지하는 건설부문은 인프라와 월드컵 관련 지출 증가세 지속으로 견고한 성장 전망

- **(Saudi Arabia)** 금년 1분기 경제가 전년 동기 대비 4.7% 성장
  - 주변국(리비아, 이라크) 석유생산 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한 증산이 2분기에도 계속 될 전망
  - 비석유부문의 성장률은 둔화되는 추세를 보임
  - 경기부양용 정부예산 증가폭 감소(2012~13년은 전년대비 19.0% 증가한 반면, 2014년은 4.3% 증가)와 불법 외국인 노동자 관리 강화 등 노동시장 변화가 성장률 저하에 영향을 끼침
  
- **(UAE)** 상반기 PMI 평균은 57.6(2013년 상반기 54.7)으로 비석유 부문의 성장이 가속화
  - 석유생산도 전년대비 2% 증산이 예상되어 2014년 5.0%의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
  
- **(UAE - Dubai)** 금년도 두바이 경제는 5% 성장될 전망
  - 두바이 경제는 UAE 전체 GDP의 30%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, 부문별로는 무역 29%, 건설 및 부동산 21%, 운송 및 물류 15%, 제조 14%, 금융 11%, 기타 10%로 구성
  - 도로, 병원 등 인프라 및 제조업 부문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견인
  - 금년 5월까지 공항 탑승객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9.2% 증가
  
- **(Iran)** 상반기 석유생산이 전년 동기대비 8% 증가하였으며, 최근 25개월 내 최저인 16.6%의 인플레이션률 달성 및 정부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 간 스프레드 축소(2013년 초 200%, 최근 20%)되는 등 경제 안정화 추세
  - (핵협상) 경제재제 추가완화 조치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, 현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
  - 경제재제 완화 최종 타결여부와 별도로 이란 진출에 대한 정부 및 민간 채널들의 물밑작업이 탐문

- **(Iraq)** ISIL에 의한 정국 소요사태 발생 전 8.7%대의 경제성장이 예상 되었으나, 금번 소요사태로 인해 GDP의 55%를 차지하는 석유생산의 하락 및 외국인 직접투자 축소로 1.8% 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
  - 국채가격 추이(당초 6.2%에서 반군 서부지역 점령 당시 7.2%로 상승하였다가 다시 6.9% 대로 하락)에 견주어 볼 때 금융시장은 금번 사태가 이라크의 석유수출 능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
  
- **(Jordan)** 중동지역 정치상황 악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
  - 이집트 천연가스의 수입 차질과 시리아 난민 유입으로 재정 및 국제수지 적자폭이 5%~6%로 확대될 전망
  - 이라크 소요사태 또한, 무역, business sentiment 및 관광산업을 저해하고 있음
  
- **(Algeria)** 지난 4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가 정치상황 개선 및 경제 구조조정 추진 정책을 생산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
  - 지속적 외국인 투자가 없어 석유생산량의 감소(상반기 중 2013년 대비 4%, 2012년 대비 10% 감소)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유전개발에 대한 사업입찰이 연기
  
- **(Egypt)** 1분기 GDP 성장률은 2.5%로 최근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전망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
  - 동 기간 고정자산 투자가 8.2% 증가한 것이 고무적
  - 에너지 보조금 삭감에 따른 78%대의 연료 가격인상 및 임시 법인세 징수 정책(매출 EGP 1천만 미만 기존 20%→25%, EGP 1천만 이상 25%→30%) 연장 등으로 민간기업의 실적 개선 및 실업률 하락을 저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움
  - 각종 경제구조 개선 정책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실행의지를 피력하여 오랫동안 끌어왔던 IMF 자금지원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높아짐

- **(Morocco)** GDP의 40%를 차지하는 농업생산이 최근 기상악화에 따라 전년대비 30%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정부는 경제성장을 전망을 하향 조정하여 발표
  - 반면, 북부아프리카와 레반트 지역 국가의 정치상황 불안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관광객 수 10% 증가, 호텔 객실 판매율이 최근 6년 내 최고 기록, 객실 당 수입 8% 증가 등 관광 사업은 활황
  
- **(Tunisia)** 지속되고 있는 농업 및 원유 생산 감소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
  - 외환보유고가 약 3.1개월 치의 수입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인 USD67억불까지 하락.    끝.